

# 서울지역 노인들의 근린시설 이용실태와 근접정도에 대한 분석

## The analysis of elderly using behavior and propinquity of neighborhood facilities

이 민 아\* 이 영 심\*\*  
Lee, Min-ah Lee, Young-Sh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lderly using behavior and propinquity of neighborhood facilitie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propinquity and using behavior of each neighborhood fac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the elderly are using more frequently and living more close to the markets, public bath, and hair salon in local community, but using less and living less close to leisure facility such as sports/health facility, hobby/education facility, and entertainment facility. Age and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were the important factors on the use and propinquity of neighborhood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having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were more likely to use and live close to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need of physical propinquity to neighborhood facilities a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facility location were required. For the mid-aged people, the education about leisure culture of the later-hood years were suggested since the use of neighborhood facility is depending on one's habit.

### I. 서 론

근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은 즐거움과 감각적인 다양함, 기본적 생활자원 및 안전성,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성, 자아실현 등 여러 가지 인간요구를 충족시킬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Lawton(1986)은 근린(Neighborhood)을 일반적인 지역사회(Community)와 같은 지리적 단위로만 정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물리적인 시설, 거주자, 그리고 이웃간의 상호관계가 그 구성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근린시설은 근린환경의 물

리적인 구성요소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자원 제공과 동시에 대인적인 상호작용 및 인적개발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통 65세 이상의 은퇴노인들에게 주거지는 가장 편안한 장소이며 가능한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주거 내 혹은 주거지의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대부분 가족의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점차로 노인의 생활내용이 다양해지면서 노인들을 둘러싼 근린환경의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장년세대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근린시설을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혹은 기타 여러 가

\* 정희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사

\*\* 정희원,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 주거학과 강사

지 이유로 근린 시설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다 (Lawton, 1986; Newcomer, 1976).

근린시설의 분류는 연구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데, 도시가구의 근린시설 이용 행태를 조사한 신영숙(1996)은 근린시설을 교육시설, 교통시설, 의료시설, 금융시설, 공공시설, 단지시설, 구매시설의 7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22개의 시설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영숙(1998)은 중년층이 희망하는 노후 근린시설 조사에서 근린시설을 3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녹지대를 산책로, 채소밭, 화단 등, 그리고 식당을 한식당, 양식당, 패스트푸드점으로, 또 취미/교육시설을 기원, 문화센터, 도서관등으로 자세히 분류하였다. 박정아(1994)는 노인단독가구의 환경적 지원 연구에서 기존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근린시설을 버스정류장, 식료품, 약국, 병원, 교회, 음식점, 우체국, 여가시설, 상가, 은행, 도서관, 영화관, 시민문화회관, 성인교육기관, 세탁소, 공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강승희, 이영호(1997)는 위의 시설 외에 경로당, 마을회관, 정자, 당상나무, 마을회관, 연못/분수 등을 포함하여 분류하였는데 이는 농촌거주노인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Newcomer(1976)는 노인들의 근린시설에 대한 이용정도와 근접정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근린시설 중에서 세탁소와 노인정은 주거지와 가까운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식료품점, 은행,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주거지에서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Chapman과 Beudet-Walters(1978)도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거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편리한 정도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를 살펴보면, Rosenberg(1970)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일수록 노인정과 같은 노인전용공간에 근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wton과 Simon(1968)은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과 취미 여가시설의 이용이 적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의 근린시설에 대한 연구는 근린 시설에 대한 요구도 및 선호도, 그리고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박정아, 1994; 변혜령, 1994; 신영숙, 1998). 자녀 동거노인의 연령별 환경 지원 요구를 조사한 변혜령(1994)의 연구에서는 고 연령층일수록 노인 전용공간과 독서실, 병원, 약국을 저 연령층일수록 교육문화센터와 스포츠/건강공간을 선호하였으며 가까이에 두기를 원하였다. 즉, 저 연령층의 경우 여가와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고 연령층은 노인 전용시설을 통해 동료들과 어울린다는지 이전의 취미생활을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의 근린시설 선호도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공원,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도서관, 서점등 여가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교통시설, 음식점, 스포츠센터를 선호하였고, 채소밭이나 재래시장은 소득과 반비례하였다(신영숙, 1998). 즉 대체적으로 연령, 경제적 지위, 건강 등의 특성이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이 낮고, 경제적 지위가 높고 건강이 좋을수록 자기개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 스포츠센터 및 여가교육시설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근린시설에 대한 이용정도와 인지된 근접정도를 알아보아, 현재 노인들의 근린시설과 관련된 생활 내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근린시설에의 관심을 유도하여 소외감의 감소와 사회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들의 일반적인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는 어떠한가?
2.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

- 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는 어떠한가?  
3. 근린시설에의 근접정도와 이용정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는 조사도구로 면접용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각종 근린시설의 이용정도 및 근접정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경제적 자립상태, 건강상태, 거주형태를 선정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연령은 실제나이를 숫자로 기입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을 받은 햇수를 기입하였다. 건강상태는 Rogers(1995)의 연구에서 분류한 일상생활행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6개 항목(목욕, 옷입기/신발신기, 식사하기,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기, 걷기, 화장실 사용하기)과 수단적 일상생활행동(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9개 항목(식사준비, 쇼핑, 자금관리, 전화걸기, 빨래, 청소, 건강돌보기, 산책, 외출)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행동의 숫자를 기입하였다. 그 외 변수들은 성별(여자(0), 남자(1)), 배우자유무(무(0), 유(1)), 주택소유여부(무소유(0), 소유(1)), 경제적 자립(아니오(0), 예(1)), 거주형태(자녀와 동거(0), 노인 단독가구(1)) 등과 같이 가변수로 코딩하였다. 근린시설은 박정아(1994), 강승희, 이영호(1997), 신영숙(1996, 1998)의 근린시설 분류를 종합하여, 노인정, 의료시설, 체육/건강증진시설, 종교시설, 금융시설, 소비시설, 녹지대, 유흥시설, 식당, 위생시설, 공공기관,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한 뒤 의료시설을 다시 병원과 약국, 소비시설은 상가시설과 재래시장, 위생시설은 이/미용실과 목욕탕/사우나로 다시 소 분류하여 모두 16개의 근린시설을 선정하였다. 노인들의 시설 이용정도는 (1)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2) 1년에

1번(혹은 어쩌다 한번) (3) 1년에 몇 번 (4) 한 달에 한번정도 (5) 일주일에 한번 혹은 더 자주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노인들의 근린시설에의 근접정도는 (1) 모른다, (2) 차로 30분 이상, (3) 차로 15-30분 이내 (4) 걸어서 20분 이상, 차로 15분 이내 (5) 걸어서 10분에서 20분 이내 (6) 걸어서 10분 이내 등으로 분류하였다. 근접정도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의 거리, 혹은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시설에의 거리로 답하도록 하였다. 즉, 응답자에 따라 근접거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보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근접성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고른 분포를 위해 인구센서스(통계청, 1995)를 참고, 지역 내 노인 인구와 지역의 일반적인 경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서초구, 강남구, 성북구, 용산구, 그리고 중구 등 5개 구에서 각각 1개 동씩을 선정하여 최종적인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5개 동은 모두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의 5%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각종 노인들이 조직되어 있었다. 각종 근린시설은 그 규모와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16개의 근린시설이 모든 동 안에 혹은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다.

자료 수집은 각 지역의 노인회 및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 연구에 관한 협조를 구한 뒤 전국적 주민등록증 갱신기간을 이용해 각 지역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를 비롯한 훈련된 면접요원 5명이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접은 1999년 6월 1일-7월 15일 까지 실시되었고, 총 357명의 노인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노인들의 근린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정도와 근접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를 보기 위해 SAS를 이용해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또한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357(100.0)
연령	65-69	103(28.9)
	70-74	69(19.3)
	75-79	80(22.4)
	80-84	62(17.4)
	85+	43(12.0)
성별	남자	118(33.1)
	여자	239(66.9)
배우자유무	유	156(43.7)
	무	201(56.3)
교육수준	무학	126(35.3)
	국졸	114(31.9)
	중졸	23(6.4)
	고졸	57(16.0)
	대졸이상	37(10.4)
주택소유여부	소유	174(48.7)
	무소유	183(51.3)
경제적 자립	아니오	197(55.2)
	예	160(44.8)
건강상태	0	202(56.6)
	1-2	73(20.4)
	3-5	45(12.6)
	6-8	24(6.7)
	9+	13(3.6)
거주형태	단독가구	166(46.5)
	자녀와 동거	191(53.5)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39.5%가 65-69세이고 2.98%가 70-74세로 나타난 인구센서스(통계청, 1995)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는 좀더 연로한 노인들이 표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의 평균연령은 75.09세 (SD=7.28)였으며 30%정도가 65-69세였고, 다른 세 범주(70-74, 75-79, 80-84)는 각각 약 20%씩 이었다. 여자 노인(66.9%)의 수가 남자 노인(33.1%)보다 2배 정도가 많았는데, 이는 전체 노인인구에서 여자노인 인구 100명당 남자노인의 인구가 약 58명인 결과와 비슷하였다(통계청, 1995). 배우자가 없는 노인(56.3%)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43.7%)보다 약간 더 많았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배우자 유무상태와 비슷하였다(유:47.6%, 무:52.4%). 약 70%의 노인이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약 10%정도의 노인이 대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절반정도의 노인이 자신명의의 혹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48.7%), 51%정도가 그렇지 않았다. 경제적 자립정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의 노인이(55.2%)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44.8%의 노인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

조사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절반이상의 노인이(56.6%) 일상생활 행동(ADL)과 일상생활의 수단적 행동(AIDL)수행에 아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20%정도의 노인이 1개 혹은 2개 정도의 행동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인 혼자, 혹은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단독가구 노인은 46.5%였고,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53.5%였다.

### 2. 노인의 근린시설 이용정도와 근접정도

조사지역 노인들의 16개 근린 시설에 대한 이용 정도와 근접 정도는 <표 2>와 같다.

먼저, 노인정의 경우를 보면, 노인정을 일 주

표 2. 노인들의 일반적인 근린시설 이용정도와 근접정도

근린시설	이용정도					근접정도					
	1	2	3	4	5	0	1	2	3	4	5
노인정	171(47.9)	4(1.1)	6(1.7)	16(4.5)	160(44.8)	37(10.4)	8(2.2)	5(1.4)	17(4.8)	74(20.8)	215(60.4)
병원	58(16.2)	57(16.0)	84(23.5)	108(30.3)	50(14.0)	9(2.5)	64(18.0)	29(8.1)	65(18.3)	69(19.4)	120(33.7)
약국	68(19.0)	51(14.3)	74(20.7)	77(21.6)	87(24.4)	6(1.7)	16(4.5)	0(0.0)	11(3.1)	37(10.4)	286(80.3)
체육/건강	305(85.4)	2(0.6)	2(0.6)	4(1.1)	44(12.3)	92(25.8)	154(43.3)	4(1.1)	17(4.8)	41(11.5)	48(13.5)
취미/교육	283(79.3)	7(2.0)	4(1.1)	13(3.6)	50(14.0)	97(27.2)	153(43.0)	16(4.5)	24(6.7)	20(5.6)	46(12.9)
종교시설	112(31.4)	20(5.6)	32(9.0)	36(10.1)	157(44.0)	22(6.2)	70(19.7)	35(9.8)	29(8.1)	62(17.4)	138(38.8)
금융시설	117(32.9)	32(9.0)	44(12.4)	99(27.8)	64(18.0)	20(5.6)	13(3.7)	2(0.6)	19(5.4)	101(28.5)	200(56.3)
상가시설	102(28.6)	14(3.9)	33(9.2)	60(16.8)	148(41.5)	11(3.1)	8(2.2)	1(0.3)	7(2.0)	57(16.0)	272(76.4)
재래시장	186(52.1)	16(4.5)	36(10.1)	49(13.7)	70(19.6)	26(7.3)	99(27.8)	16(4.5)	39(11.0)	86(24.2)	90(25.3)
복지대	184(51.5)	28(7.8)	25(7.0)	40(11.2)	80(22.4)	38(10.7)	85(23.9)	21(5.9)	59(16.6)	78(21.9)	75(21.1)
유흥시설	306(85.7)	21(5.9)	17(4.8)	10(2.8)	3(0.8)	85(23.9)	127(35.7)	14(3.9)	13(3.7)	45(12.6)	72(20.2)
식당	182(51.1)	34(9.6)	52(14.6)	39(11.0)	49(13.8)	36(10.1)	74(20.8)	13(3.7)	25(7.0)	65(18.3)	142(40.0)
미(이)용실	39(10.9)	8(2.2)	118(33.1)	175(49.0)	17(4.8)	12(3.4)	16(4.5)	12(3.4)	15(4.2)	56(15.7)	245(68.8)
목욕탕	64(17.9)	6(1.7)	31(8.7)	86(24.1)	170(47.6)	11(3.1)	8(2.2)	3(0.8)	13(3.7)	58(16.3)	263(73.9)
공공기관	156(43.8)	58(16.3)	77(21.6)	37(10.4)	28(7.9)	15(4.2)	1(0.3)	3(0.8)	29(8.1)	128(36.0)	180(50.6)
대중교통	61(17.1)	40(11.2)	39(10.9)	58(16.2)	159(44.5)	6(1.7)	2(0.6)	9(2.5)	21(5.9)	104(29.2)	214(60.1)

이용정도: 1. 전혀 이용하지 않음, 2. 1년에 한번 정도(어쩌다 한번), 3. 1년에 몇 번, 4. 한 달에 한 번 정도, 5. 일주일에 한번, 혹은 더 자주 이용.  
 근접정도: 0. 모른다, 1. 차로 30분 이상, 2. 차로 15분-30분, 3. 차로 15분 이내, 혹은 걸어서 20분 이상, 4. 걸어서 10분-20분, 5. 걸어서 10분 이내

일에 한번, 혹은 더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44.8%이었으며 그 반면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도 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노인들의 약 절반 정도가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한 근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노인정은 노인을 위한 시설 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정의 근접 정도는 도별로 10분 이내가 60.4%, 도별로 10분-20분 이내가 20.8%로 대부분의 노인이 노인정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거리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의 이용 정도는 한 달에 한번 정도 (30.3%)가 가장 많았으며, 23.5%가 1년에 몇 번 정도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병원의 근접 정도는 33.7%가 도별로 10분 이내 그리고 19.4%가 도별로 10분-20분이었다. 그러나, 18%는 차로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답하여 노인의 특성상 특정 병원을 거리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약국 이용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24.4%), 그리

고 한 달에 한번 정도(21.6%)의 순으로, 노인들이 몸에 이상을 느꼈을 경우에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약국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국은 80.3%가 도별로 10분 이내라고 답해 병원보다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체육/건강증진시설과 취미/교육시설은 각각 85.4%, 79.3%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최근 들어 스포츠, 취미교실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있는 것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시설이용정도는 아주 낮았다. 한편, 조사 노인들의 55.2%가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들의 여가 시설 이용은 경제적인 면에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체육/건강증진시설과 취미/교육시설의 근접 정도는 각각 43.3%, 43%가 차로 30분 이상이 걸린다고 답하였다. 또한 전체노인의 25.8%, 25.2%가 각각 체육/건강증진시설과 취미/교육시설의 근접 정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시설의 홍보가 부족하고 대다수의 노인들이 젊은 세대에 비하여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선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노인층을 겨냥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종교 시설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44%)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생활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 시설은 38.8%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어 시설 이용에도 그다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노인들은 금융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32.9%), 이용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27.8%)였다. 그러나 금융 시설은 도보로 10분 이내(56.3%) 혹은 10분-20분 이내의 거리(28.5%)에 위치하여 노인들의 실제적인 금융 시설의 이용 정도는 낮은 반면 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가 시설은 노인들의 41.5%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용하였는데, 이는 조사 노인의 30%가 65-69세의 연령에 속하며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또, 조사 노인의 약 67%가 여성 노인인 배경도 상가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반면, 재래 시장은 노인들의 과반수 이상(52.1%)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각 시설의 근접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상가 시설은 76.4%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재래 시장은 25.3%가 도보로 10분 이내, 그리고 24.2%가 도보로 10분-2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노인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상가 시설을 더 빈번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과반수 이상(51.5%)이 녹지대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녹지에 대한 근접 정도는 43%의 노인이 도보로 20분 이내에서 녹지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지한 반면, 23.9%가 차로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답하였다.

노인들의 유희 시설의 이용 정도는 체육/건강증진시설이나 취미/교육시설의 경우보다도 훨씬 낮아, 85.7%가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며 이용한다 해도 1년에 1번 정도(5.9%)로 그 이용정도

가 미미하였다. 이는 대개의 유희시설이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 이용되므로 노인층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 정도가 낮은 점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32.8%는 유희시설이 도보로 10분 이내 혹은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고 답하여 유희시설이 체육/건강증진시설과 취미/교육시설에 비하여 그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당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51%이었으며 식당의 근접 정도는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40.0%)가 많았는데 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20.8%)도 적지 않았다.

노인들은 미(이)용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49.0%) 이용하고 있었으며, 목욕탕(사우나)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47.6%)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24.1%)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노인들의 생활 자립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이)용실은 74%가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었다. 공공 기관의 근접 정도는 86.6%가 도보로 10분 이내-20분 이내로 위치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 이용정도는 낮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43.8%)나 혹은 1년에 몇 번 정도(21.6%)였다.

대중 교통은 44.5%가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사용함으로써, 노인들이 대중 교통 수단으로 실제적인 생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대중 교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17.1% 이었다.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목적이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만약 그 목적이 원거리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다면 도보 거리 내에서의 시설 확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 교통의 근접정도는 도보로 10분 이내(60.1%) 혹은 20분 이내(29.2%)로 거리상 비교적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상가시설 및 종교시설은 자주 이용하는 반면, 의료시설의 이용정도는 낮았고, 상

가시설과 종교시설은 가까이, 그리고 의료기관 및 기타 여가시설은 비교적 멀리 위치하고 있었다.

### 3.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의 이용 정도

조사지역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근린 시설의 이용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8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종 근린 시설의 이용정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표 3).

먼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정의 이용도는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약 30%의 설명력을 보였다 ( $R^2=0.300$ ). 노인정의 이용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 $p < .001$ )과 교육 수준( $p < .001$ )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노인들은 노인정 이외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그 욕구가 더 강할 것이다.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의 사용 정도가 더 높았는데( $p < .01$ ) 이는 남자 노인의 경우에 사회적 활동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인정의 활동에 여성 노인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병원과 약국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정도가 높았다(각각  $p < .05$ ,  $p < .01$ ). 한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약국의 이용 정도가 높고 주택을 소유한 노인의 경우에 병원의 이용 정도가 높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일수록 약국보다는 병원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체육/건강시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정도가 더 높았다( $p < .001$ ).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여가 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소유하며 시설 활용에 대한 인식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교육 수준과 경제적 능력이 대체로 비례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여가 시설의 이용정도는 노인의 경제적인

능력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일수록 취미/교육 시설의 이용정도가 높은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p < .05$ )

취미/교육시설은 연령이 높고( $p < .05$ ), 건강할수록( $p < .05$ ), 그리고 여자 노인인 경우에( $p < .001$ ) 이용 정도가 높았다. 이는, 연령이 많은 여성 노인의 경우에 보다 정적인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교시설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p < .05$ ), 그리고 여자노인인 경우에( $p < .001$ ) 이용 정도가 높았다. 노인들에게 종교생활은 중요한 사회활동의 하나로 대개의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참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한 경우에( $p < .01$ )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금융시설의 이용정도는 약 36%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p < .001$ ). 변수별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p < .001$ ), 주택을 소유한 노인일수록( $p < .01$ ), 건강하고( $p < .05$ )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일수록( $p < .001$ )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나 금융시설은 모든 면에서 독립적인 노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시설로 파악되었다.

상가시설과 재래시장은 연령이 낮고( $p < .001$ ) 건강할수록( $p < .001$ ) 이용정도가 높았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시장 보기도 하나의 사회 활동이며 이는 상가의 이용 정도에서 볼 수 있듯 주로 여성 노인의 활동으로 파악되었다. ( $p < .01$ ).

녹지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이용정도가 높아 점차로 녹지대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인 요구 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p < .001$ ), 그 이용정도는 남자노인의 경우에 더 높았다( $p < .001$ ).

유흥시설은 연령이 낮고( $p < .01$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정도가 높아( $p < .05$ ), 앞으로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실제적인 참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의 이용정도

근린시설 변수	노인정	병원	약국	체육/ 건강	취미/ 교육	종교	금융	상가 시설	재래 시장	녹지대	유흥 시설	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공공 기관	대중 교통
연령	0.06(0.24 <sup>***</sup> )	-0.03(-0.14 <sup>*</sup> )	-0.04(-0.20 <sup>**</sup> )	-0.02(-0.09)	0.03(0.15)	-0.04(-0.15 <sup>*</sup> )	-0.00(-0.01)	-0.05(-0.20 <sup>***</sup> )	-0.06(-0.27 <sup>***</sup> )	-0.06(-0.24 <sup>***</sup> )	-0.02(-0.19 <sup>**</sup> )	-0.01(-0.06)	-0.02(-0.15 <sup>*</sup> )	0.01(0.03)	0.00(0.01)	-0.04(-0.20 <sup>**</sup> )
성별	0.63(0.15 <sup>**</sup> )	-0.20(-0.07)	-0.32(-0.11)	0.07(0.03)	-0.66(-0.21 <sup>***</sup> )	-1.44(-0.38 <sup>***</sup> )	-0.33(-0.10)	-0.66(-0.18 <sup>**</sup> )	-0.28(-0.08)	0.99(0.28 <sup>***</sup> )	-0.07(-0.04)	-0.10(-0.03)	0.30(0.14 <sup>*</sup> )	-0.08(-0.02)	0.18(0.06)	0.36(0.11)
배우자 유무	-0.22(-0.06)	-0.01(-0.00)	0.21(0.07)	-0.17(-0.06)	0.06(0.02)	0.16(0.04)	-0.31(-0.10)	0.20(0.06)	0.39(0.12)	0.04(0.01)	0.09(0.06)	0.23(0.08)	0.10(0.05)	0.35(0.12)	-0.13(-0.05)	-0.01(-0.00)
교육수준	-0.12(-0.34 <sup>***</sup> )	-0.03(-0.12)	-0.05(-0.18 <sup>*</sup> )	0.06(0.26 <sup>**</sup> )	0.03(0.11)	0.03(0.10)	0.10(0.37 <sup>***</sup> )	-0.00(-0.00)	-0.01(-0.05)	-0.01(-0.03)	0.02(0.15)	0.09(0.33 <sup>***</sup> )	0.02(0.08)	-0.00(-0.01)	0.06(0.26 <sup>**</sup> )	0.01(0.04)
주택소유	-0.03(-0.01)	0.36(0.14 <sup>*</sup> )	0.15(0.05)	0.25(0.09)	0.02(0.01)	-0.21(-0.06)	0.46(0.15 <sup>**</sup> )	0.28(0.08)	0.00(0.00)	0.20(0.06)	0.08(0.05)	0.33(0.11)	0.05(0.03)	0.04(0.01)	0.24(0.09)	0.19(0.06)
경제적 자립	-0.02(-0.00)	-0.09(-0.03)	0.16(0.06)	0.11(0.04)	0.39(0.13 <sup>*</sup> )	0.29(0.08)	0.54(0.17 <sup>**</sup> )	-0.12(-0.03)	-0.07(-0.02)	-0.23(-0.07)	-0.14(-0.09)	-0.11(-0.04)	-0.10(-0.05)	-0.05(-0.01)	0.42(0.16 <sup>**</sup> )	0.14(0.05)
건강	0.04(0.05)	0.01(0.01)	0.00(0.01)	-0.02(-0.05)	-0.08(-0.14 <sup>*</sup> )	-0.11(-0.17 <sup>**</sup> )	-0.10(-0.17 <sup>**</sup> )	-0.19(-0.30 <sup>***</sup> )	-0.13(-0.21 <sup>***</sup> )	-0.02(-0.04)	0.00(0.00)	-0.07(-0.12 <sup>*</sup> )	-0.05(-0.14 <sup>*</sup> )	-0.12(-0.22 <sup>***</sup> )	-0.08(-0.16 <sup>**</sup> )	-0.09(-0.16 <sup>**</sup> )
거주형태	-0.11(-0.03)	-0.20(-0.08)	-0.26(-0.09)	0.06(0.02)	0.28(0.09)	-0.03(-0.01)	0.14(0.04)	0.29(0.09)	0.12(0.04)	0.01(0.00)	0.02(0.01)	-0.00(-0.00)	-0.11(-0.06)	0.13(0.04)	-0.15(-0.06)	0.08(0.02)
상수	-1.586	6.239	6.643	2.797	-0.514	6.915	3.262	8.253	7.153	5.959	2.879	3.199	4.696	3.301	1.610	6.444
R <sup>2</sup>	0.3002 <sup>***</sup>	0.0486 <sup>*</sup>	0.0689 <sup>**</sup>	0.1571 <sup>***</sup>	0.0830 <sup>***</sup>	0.2030 <sup>***</sup>	0.3591 <sup>***</sup>	0.2628 <sup>***</sup>	0.1884 <sup>***</sup>	0.1432 <sup>***</sup>	0.1046 <sup>***</sup>	0.2574 <sup>***</sup>	0.1247 <sup>***</sup>	0.0706 <sup>**</sup>	0.2083 <sup>***</sup>	0.1719 <sup>***</sup>

\*p&lt;.05 \*\*p&lt;.01 \*\*\*p&lt;.001

가변수: 성별(여자(0), 남자(1)), 배우자유무(무(0), 유(1)), 주택소유여부(무소유(0), 소유(1)), 경제적 자립(아니오(0), 예(1)), 거주형태(자녀와 동거(0), 노인 단독가구(1))



식당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 < .001$ ) 그리고 건강이 좋을수록( $p < .05$ ) 이용정도가 높았는데, 점차로 단독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현실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미용실은 연령이 낮을수록( $p < .05$ ) 건강할수록( $p < .05$ ), 그리고 남자 노인의 사용정도가 더 높았다( $p < .05$ ), 목욕탕 역시 건강할수록( $p < .001$ ) 이용 정도가 높았다.

공공기관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 < .001$ ), 건강할수록( $p < .01$ ), 그리고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노인이 이용 정도가 높아( $p < .01$ ) 금융 시설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중교통의 이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p < .01$ ) 그리고 건강할수록( $p < .01$ ) 이용 정도가 높아 연령이 낮고 건강한 노인일수록 원거리의 사회활동이 활발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령층이 낮고, 높은 교육수준과 양호한 건강상태를 가진 노인일수록 주변 근린시설에의 높은 이용정도를 보였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인일수록 금융기관의 이용이 높았다. 반면, 배우자유무, 주택소유 및 거주형태는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자노인은 노인정, 녹지대 및 이용실의 이용정도가 높았고, 여자노인의 경우 취미, 종교, 상가시설의 이용정도가 높아 성별에 따른 노인들의 시설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4.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에의 근접 정도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근린 시설의 근접 정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8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종 근린 시설에 대한 근접정도를 종속 변수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하였다(표 4).

먼저, 노인정의 근접정도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교육 수준( $p < .001$ )과 거주 형태( $p < .05$ )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단독 가구 노인이 근접 정도가 높았다. 단독 가구 노인의 경우는

친목을 목적으로 한 실제적인 사용 정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노인정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병원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근접 정도가 높았는데( $p < .05$ ),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 활동 반경이 넓어 원거리의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약국은 여성 노인의 경우와( $p < .05$ )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 근접 정도가 높았으며( $p < .05$ ) 병원과 약국 모두 건강할수록 근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각각  $p < .05$ ,  $p < .001$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육/건강 시설에 대한 근접 정도의 차이는 약 18%의 설명력을 보였다( $R^2=0.1802$ ,  $p < .001$ ). 변수별로, 교육 수준이 높고( $p < .05$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 그 근접 정도가 높아( $p < .05$ ),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일수록 여가 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미/교육 시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없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단독 가구의 노인이 근접 정도가 높아 체육/건강 시설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종교 시설은 건강할수록 근접 정도가 높았고( $p < .05$ ), 금융 시설은 연령이 낮을수록( $p < .05$ ) 그리고 건강할수록 근접 정도가 높게 나타나( $p < .05$ ) 건강은 노인 활동의 기본적인 조건이며 금융 시설 등에 대한 노인의 관심 정도도 점차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가시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에( $p < .05$ ), 그리고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에 근접 정도가 높았으며( $p < .05$ ) 또한 건강할수록 근접 정도가 높았다( $p < .01$ ).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적인 노인의 경우는 장보기의 활동 반경 역시 넓을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결과로 여겨졌다. 재래시장은 일반 상가에 비하여 근접 거리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노인의 연령이

표 4.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에의 근접정도

근린시설 변수	노인정	병원	약국	체육건강	취미교육	종교	금융	상가시설	재태시장	녹지대	유흥시설	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공공기관	대중교통
연령	-0.00(-0.00)	-0.01(-0.07)	0.01(0.04)	-0.01(-0.05)	0.00(0.01)	0.00(0.01)	-0.02(-0.13)	-0.02(-0.10)	-0.05(-0.22)	-0.03(-0.13)	-0.02(-0.09)	0.00(0.01)	-0.01(-0.06)	0.01(0.03)	-0.02(-0.10)	0.00(0.02)
성별	0.08(0.02)	0.12(0.03)	-0.34(-0.15)	0.05(0.01)	-0.24(-0.07)	-0.06(-0.02)	0.05(0.02)	0.01(0.00)	-0.02(-0.00)	0.23(0.08)	0.20(0.05)	-0.15(-0.04)	0.53(0.18)	0.23(0.09)	0.13(0.06)	-0.20(-0.10)
배우자 유무	-0.39(-0.12)	0.14(0.04)	0.31(0.14)	0.35(0.10)	0.42(0.13)	-0.12(-0.03)	0.07(0.03)	0.05(0.02)	0.14(0.04)	-0.05(-0.01)	0.04(0.01)	-0.07(-0.02)	-0.07(-0.03)	-0.00(-0.00)	0.08(0.03)	0.08(0.04)
교육수준	-0.07(-0.25)	-0.04(-0.15)	0.01(0.07)	0.05(0.14)	0.00(0.01)	0.02(0.06)	0.02(0.09)	-0.01(-0.03)	0.00(0.01)	0.00(0.00)	-0.01(-0.02)	-0.02(-0.05)	-0.01(-0.05)	-0.01(-0.07)	0.03(0.14)	0.02(0.13)
주택소유	0.20(0.06)	-0.16(-0.05)	-0.12(-0.05)	0.50(0.14)	0.12(0.03)	-0.13(-0.04)	0.23(0.08)	0.03(0.01)	-0.01(-0.00)	0.09(0.02)	0.62(0.16)	0.46(0.12)	0.14(0.05)	0.10(0.05)	-0.04(-0.02)	0.05(0.02)
경제력 차립	-0.15(-0.05)	-0.15(-0.05)	0.02(0.01)	0.39(0.11)	0.35(0.10)	0.21(0.06)	0.08(0.03)	-0.28(-0.13)	-0.05(-0.01)	0.01(0.00)	0.30(0.08)	0.20(0.05)	0.00(0.00)	-0.00(-0.00)	-0.06(-0.03)	0.08(0.04)
건강	-0.05(-0.09)	-0.08(-0.13)	-0.08(-0.20)	-0.04(-0.07)	-0.07(-0.11)	-0.08(-0.12)	-0.06(-0.12)	-0.07(-0.18)	-0.08(-0.11)	-0.03(-0.05)	-0.08(-0.11)	-0.13(-0.18)	-0.03(-0.07)	-0.10(-0.23)	-0.09(-0.21)	-0.07(-0.20)
거주형태	0.44(0.14)	0.12(0.04)	-0.01(-0.00)	-0.12(-0.03)	0.25(0.08)	0.14(0.04)	0.01(0.00)	0.29(0.13)	0.38(0.11)	0.14(0.04)	-0.01(-0.00)	0.42(0.11)	0.03(0.01)	0.15(0.07)	0.12(0.05)	0.07(0.04)
상수	5.51	4.38	4.04	2.20	0.80	2.78	5.96	6.10	6.65	4.97	4.21	3.83	4.86	4.14	5.12	4.28
R <sup>2</sup>	0.070	0.036	0.062	0.180	0.082	0.028	0.123	0.081	0.125	0.043	0.107	0.089	0.041	0.071	0.151	0.092

\*p<0.05 \*\*p<0.01 \*\*\*p<0.001

가변수: 성별(여자(0), 남자(1)), 배우자유무(무(0), 유(1)), 주택소유여부(무소유(0), 소유(1)), 경제력 차립(아니오(0), 예(1)), 거주형태(자녀와 동거(0), 노인 단독가구(1))

낮을수록( $p < .001$ ) 그리고 건강할수록 근접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 또한 이를 예증하는 것이다( $p < .05$ ).

유흥 시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 근접 정도가 높았는데( $p < .05$ ),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 여가 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당은 건강할수록 근접 정도가 높게 나타나, 외식 자체가 건강한 노인에게 하나의 중요한 사회 활동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1$ ).

이/미용실은 남자 노인의 근접 정도가 높아, 여자 노인들의 미용실 사용보다는 남자 노인들의 이용실 사용이 더 활발함을 알 수 있었으며( $p < .01$ ), 목욕탕은 건강할수록 그 근접 정도가 높았다( $p < .001$ ).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근접정도의 차이는 약 15%의 설명력을 보였다( $R^2=0.1510$ ),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 < .05$ ) 그리고 건강할수록 근접 정도가 높아( $p < .001$ ), 점차로 노인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지 정도와 사용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중 교통은 건강할수록 근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전체적으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양호한 건강이 대부분의 근린시설에의 근접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생활 활동범위와 건강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연령층이 낮은 노인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근접정도가 높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이 노인정에의 근접정도가 높았다. 노인의 성별, 배우자유무, 주택소유 및 경제적 자립, 거주형태는 근린시설에의 근접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간의 상관관계**

노인의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와의 상관관계**

근린시설	이용정도 M(SD)	근접정도 M(SD)	r
노인정	2.98(1.94)	4.04(1.61)	0.31***
병원	3.10(1.29)	3.35(1.57)	0.10
약국	3.18(1.44)	4.57(1.09)	0.21***
체육/건강	1.54(1.35)	1.73(1.77)	0.44***
취미/교육	1.71(1.46)	1.59(1.68)	0.43***
종교시설	3.30(1.76)	3.27(1.76)	0.23***
금융시설	2.89(1.55)	4.16(1.36)	0.45***
상가시설	3.39(1.69)	4.55(1.09)	0.43***
재래시장	2.44(1.66)	2.93(1.75)	0.55***
녹지대	2.45(1.69)	2.78(1.73)	0.39***
유흥시설	1.27(0.75)	2.06(1.92)	0.15**
식당	2.27(1.51)	3.23(1.88)	0.25***
미(이)용실	3.34(1.01)	4.31(1.31)	0.23***
목욕탕/사우나	3.82(1.49)	4.49(1.12)	0.28***
공공기관	2.22(1.32)	4.24(1.13)	0.27***
대중교통	3.60(1.54)	4.41(0.96)	0.23***

노인정, 병원, 약국 등의 근린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들의 이용 정도와 근접 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근린 시설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 이는 근린시설이 가까울수록 실제적인 이용 정도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 $r=0.55$ ), 금융시설( $r=0.45$ )과 상가 시설( $r=0.43$ )의 경우에 그 이용 정도가 높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녹지대( $r=0.39$ ) 역시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그 이용 정도가 높았다. 근린 시설 중 자연 환경은 노인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지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공원 등의 녹지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체육/건강시설( $r=0.44$ )과 취미/교육시설( $r=0.43$ ) 역시 시설이 거주 지역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그 이용 정도가 낮았다. 연구 결과 노인들은 근린 시설 중 체육/건강시설과 취미/교육 시설의 위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거리 상의 문제라기보다 근린 시설에 대한 인지의 차이로 보여졌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노인들의 교육/취미시설, 체육/건강증진 시설 등 여가시설에 대한 요구정도 및 선호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박정아, 1994;

변혜령, 1994; 신영숙, 1998)는 근접한 여가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병원에의 근접성이 반드시 높은 이용도를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른 편의시설과 달리 병원은 필요할 때 찾는 곳이라는 노인들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근린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정도 그리고 근접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근린시설의 이용정도와 근접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노인은 상가시설, 미/이용실, 목욕탕, 금융시설, 약국, 종교시설의 이용정도가 높았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근접정도 또한 높았다. 반면 체육/건강증진 시설 및 취미/교육시설, 그리고 유흥시설의 이용정도는 낮았으며 이들 시설의 근접정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노인들의 여가 시설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을 위한 근접한 여가시설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었다.

2.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노인이 각종 근린시설에 대한 이용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근린시설에 대한 근접정도 또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의 높은 교육수준과 양호한 경제상태는 결과적으로 체육/건강시설 및 취미시설과 같은 여가시설과 금융시설의 이용 정도 및 근접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각 근린시설의 근접정도와 이용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근린시설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근

린시설이 가까울수록 실제적인 이용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는 결과로서 각 지역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인 인구를 배려한 근린시설의 점검 및 확충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각 지역사회의 체육 및 교육, 취미시설 등의 여가시설은 노인들에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에 근린시설의 활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제력과 건강을 고려한 근린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가 필요하며 전체 연령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중년세대를 위한 여가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근린시설의 이용이 개인적인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린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가 시간의 활용 및 근린시설 이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노인을 위한 새로운 근린시설을 계획할 경우는 노인의 다양한 요구가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제외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젊은 층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발달되는 경향을 보이는 현 사회 내에서 노인들의 근린시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생활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근접정도의 파악에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의 근접성보다는 노인들이 이용하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설의 근접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가 실제로 특정지역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근린시설 배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 지역사회별로 근린시설 및 공간적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 및 비교분석을 통해 노인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근린시설 계획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강승희, 이영호(1997). 노인의 여가활동 및 근린시설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3), 177-185.
2. 박정아(1994). 노인단독가구의 환경적 지원성 요구에 관한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
3. 변혜령(1994). 자녀동거노인의 환경적 지원성 요구에 관한 연구. 연대석사학위논문
4. 신영숙(1996). 도시가구의 근린시설 이용형태와 거주지환경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261-282.
5. 신영숙(1998).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 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05-120.
6. 통계청(1995). 인구주택센서스.
7. Chapman, N.J. & Beudet-Walters, M(1978). Predictors of environmental well-being for older adults. In Lawton(Ed). *Environment and Aging*. NY, NY: Center for the Study of Aging, 1986, pp.39-40.
8. Lawton, M.P(1986). *Environment and Aging*. NY, NY: Center for the Study of Aging.
9. Lawton, M.P., & Simon, B.(1968). The ecology of social relationships in housing for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8, 108-115.
10. Newcomer, R.J.(1976). An evaluation of neighborhood service convenience for elderly housing project residents. In Lawton(Ed). *Environment and Aging*. NY, NY: Center for the Study of Aging, 1986, p.39.
11. Rogers, C. C.(1995). Health status transitions of the elderly by residential location: 1984 to 1990. *Family Economics and Nutrition Review*, 8(4), 18-29.
12. Rosenberg, G.S.(1970). *The worker grows old*. San Francisco: Jossey-Bass.